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5월 10일(주일) 제1294호



## 5월 11일, 18일 주간 ‘순예배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웹이나 등 활용한 토론회 이후 온누리교회 미래 방향 설정에 적용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 준비한다. 5월 11일과 18일 주간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순예배 간담회’를 실시한다.

순예배 간담회는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온누리교회가 준비하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골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변화와 인식을 교회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통로가 바로 ‘순예배 간담회’다. 5월 11일 주간과 18일 주간 실시되는 ‘순예배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면 된다.

첫째, 공동체 담당목사가 순장교육에서 순장들에게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위한 순예배 간담회 취지와 배경, 향후 계획과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둘째, 온누리신문(5월 3일자, 10일자)에 보도된 ‘순예배 간담회’ 관련 기사 파일(PDF)을 순장과 순원들이 함께 읽거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순예배 간담회 관련 카드뉴스를 시청한 다음 순예배를 시작한다.

셋째, 순장들은 순예배 간담회에

서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서 1주일 이내에 공동체 담당목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5월 11일 주간 순예배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직장, 가정, 학교, 취업 및 진로에서)’,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 주는 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 시기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불태우고 치유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우리 안에 불태우고 정결하게 회복할 부분은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개인차원에서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토론하면 된다.

5월 18일 주간 순예배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교회, 신앙생활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차원에서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교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이슈)’,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교회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등을 주제로 토론하면 된다.

온누리미래위원회에서는 순예배 간담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의견을 파악한 다음 온누리교회가 고민하고 적용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해서 성도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실시할 예정이다. 웨비나(Webinar: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 웹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실시간 혹은 녹화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해서 발제자, 토론자, 청중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해서 성도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순예배 간담회와 웨비나 등을 활용한 토론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의견과 자료들을 분석한 다음에는 교회가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을 추려내고 논의한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의 방향설정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미래위원회(위원장 윤영각 장모)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순예배 간담회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온누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미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순예배 간담회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관련기사 2-3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순예배 간담회 가이드라인을 위한 Q&A〉

Q. 순예배 간담회 가이드라인은 무엇을 위해 만든 건가요?

A. 5월 둘째 주(11일 주간)와 셋째 주(18일 주간) 진행할 두 차례 간담회 개최 배경과 순예배 진행 방식 설명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Q. 간담회 형식의 순예배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온누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미래 방향 정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입니다. 이 첫걸음은 우리 교회의 실패점 같은 순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이번 순예배에서 〈생명의삶〉은 사용을 안 하나요?

A. 아니요, 〈생명의삶〉도 사용합니다. 다만 이번 두 번에 한해 간담회에 집중하기 위해 〈생명의삶〉을 간략히 나눈 후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90분 진행의 경우, 〈생명의삶〉 30분, 간담회 60분으로 진행).

Q. 이번 간담회 결과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A. 1차적으로는 웨비나 토론 주제 선정과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자료 분석과 당회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에 보고하여 향후 온누리교회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Q. 이번 간담회와 웹세미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A. 5월 중 간담회와 6월 중 웹세미나의 결과는 7월 중 당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리더십에 보고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Q. 과거에도 성도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몇 차례 있었는데, 의견을 듣는데서 멈추고 어떻게 반영되어 진행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닌가요?

A. 이번 간담회와 웹세미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먼저 단순한 일방적인 설문조사에 그치는게 아니고, 순예배에서 진솔한 토의가 먼저 진행됩니다. 한 달 간 순예배에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됩니다.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 간에 실시간 양방향의 의견교환을 위해 웹세미나를 갖게 되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달 간의 두 단계 과정을 거친 후 7월부터는 교회 리더십 안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후, 논의 경과에 따라 금년 가을부터는 금년 상반기에 진행한 과정을 토대로 한 성도들과 교회 리더십 간 소통과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5월 11일 주간 토론주제

Q1. 코로나 시대에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일터, 직장, 가정, 학업, 진로 영역)

Q2. 코로나 시대의 이러한 변화가 나의 삶에 주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Q3. 이 시기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불태우고 치유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우리 안에 개인차원에서 불태우고 정결하게 회복할 부분은 무엇일까?

Q4.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차원에서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업, 진로 영역)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준비합시다! | ‘순예배 간담회’ 두 번째 토론

##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청년, 주부, 차세대 부모, 자영업자에게 묻다

5월 11일, 18일 주간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그 두 번째 토론주제를 청년, 주부, 차세대 부모, 자영업자에게 먼저 물었다. 질문은 ‘코로나 발생 이후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신앙, 가정, 직장, 학원) 차원, 교회 차원에서 새롭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교회를 새롭게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교회 및 성도의 본질 회복) 등이다. 이 질문에 박세혁 형제(35세, 여호수아공동체, 자영업), 유소영 성도(42세, 차세대 부모, 온라인마켓 운영), 장민구 성도(49세, 브릿지33+공동체, 회사원), 송윤숙 성도(42세, 주부, 부천 온누리교회)가 응답했다.

/ 편집자 주

### 코로나 발생 이후 느낀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

장민구 성도(49세, 브릿지33+공동체)는 회사원이다. 원래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정리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삶이 단 순해짐을 경험했다.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다보니 혼자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전보다 생활이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박세혁 형제(35세, 여호수아공동체)는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다. 그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사회의 따뜻함을 느꼈다.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막히고 멀어졌지만 역설적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유소영 성도(42세, 차세대 부모)는 온라인예배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눈짓, 말투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송윤숙 성도(42세, 주부, 차세대 부모) 또한 가정이 더욱 풍성해졌다고 고백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집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더욱 풍성해짐을 느꼈습니다.”

###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개인)

유소영 성도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거나 물을 아껴 쓰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혁 형제는 코로나 이후 삶의 이유와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정이 상당히 제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눈과 힘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민구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읽기’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믿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을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송윤숙 성도도 새로운 환경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개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온누리교회)

박세혁 형제는 코로나 이후 온누리교회가 예배의 형식과 신앙의 본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형식, 제도, 방법 등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예배의 본질과 형식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소영 성도는 온누리교회 차원의 캠페인성 사회참여도 좋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작은 섬김을 하자고 제안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사랑 캠페인도 좋지만, 순이나 성도 개개인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성도만 참여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섬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숙 성도는 온누리교회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나 성경 애니메이션 등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민구 성도는 평신도들이 온누리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신도가 목회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평신도의 역할이 확대되면 신앙과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회와 성도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해야 할 것

박세혁 형제는 교회와 성도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 기도, 큐티 등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과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앞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놓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과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큐티 등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송윤숙 성도도 교회와 성도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말씀중심의 양육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힘써 기도하는 교회, 나라와 이방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는 교회, 체계적인 차세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소영 성도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성도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성도 개인이 곧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시스템을 모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쉽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을 바꾸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바뀌어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민구 성도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굳건하고 질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 신앙은 안 된다고 단언했다.

“낮설고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하고 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성도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너무 연약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온실 속 화초 같은 교회와 성도는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도들에게 깨달음과 각성, 회개가 일어나야 굳은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 세상은 코로나 이전(BC)과 이후(AC)로 나뉜다!

## 교회가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앞으로 세상은 BC(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와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한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이 인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그 때문인지 요즘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라는 말이 유행이다. 포스트 코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양상과 추이를 의미하는 용어다.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사회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 교회도 예외일수 없다. 그래서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코로나19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인류를 변화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하며 인류를 변화시켜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세시대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이다.

### 흑사병, 세계 역사를 바꾸다

흑사병은 14세기 중반(1348~1350년 무렵) 발생했다. 중국에서 3천만 명, 이집트에서는 하루 1만 명이 사망했다.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엄청난 재앙이었다. 이 흑사병은 중세 유럽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결과를 낳았다. 중세사회를 지배하던 봉건제도를 몰락시키고 자본주의, 인본주의, 르네상스, 1차 산업혁명을 낳는 산과 역할을 했다.

중세 유럽은 영주가 농노(노동자)를 착취하는 봉건사회였다. 그러나 흑사병이 발병하면서 농노들이 대거 목숨을 잃자 노동자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봉건 영주들은 농노 이탈 방지를 위해 임금과 처우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부유해졌다. 부유해진 농노들의 구매력이 향상되었고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숨진 친척들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중산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과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단초가 바로 이것이다.

흑사병은 인본주의와 르네상스를 낳기도 했다. 중세 유럽은 교회(가톨릭) 중심사회였다. 그들은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전염병이 수도사의 목숨까지 수도 없이 앓아갔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신학보다는 과학과 문학에 더욱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르네상스의 태동이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흑사병은 1차 산업혁명(노동의 기계대체) 발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국 MIT 교수 피터 테민에 따르면 농노들의 임금향상은 비용 감소를 위한 대체재를 찾게 하는 원인이 됐고, 노동력을 대체할 기계를 찾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

흑사병은 종교개혁도 촉진시켰다.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은 기계화를 유발했고, 노동력 부족은 1445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

한 인쇄술을 발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인쇄술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실 흑사병의 피해는 유럽보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더욱 극심했다. 그런데 유럽의 흑사병만 유독 화제가 된 이유가 뭘까? 바로 흑사병으로 인해 중세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고, 전 세계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 변화에 순응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이처럼 흑사병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고 건강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1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마부들과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 주저하다가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놓쳐버린 영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였음에도 불구하

고 정작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마부들의 일자리 보호 때문이었다. 1865년 ‘적기조례(Red Flag Act; 붉은 깃발법)’가 만들어졌다. 적기조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한 대의 자동차에 운전수, 기관원, 기수 3명의 운전수가 있어야 하고,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55m 앞에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 기수가 앞에서 마차를 타고 ‘뒤에 자동차가 오니 조심하십시오’라고 깃발을 흔들면서 가야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또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내에서 32km/h, 시외에서 64km/h로 제한했다. 당시 증기자동차의 주행속도가 30km/h 이상이었는데 마차보다 천천히 가야 하는 자동차를 타라고 법으로 정한 것이다.

그 규제의 부작용이 컸다.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터무니없이 규제하는 동안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꽃을 피웠다. 영국은 최초로 자동차를 사용한 나라였지만,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을 포기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적기조례는 1896년 폐지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쇠퇴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마부들의 일자리가 사라

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변화는 이미 시작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

중국 여러 도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제 격리조치가 실시된 3월 이혼율이 25%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더불어 가정폭력도 증가했다고 한다.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으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게 도리어 독이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기치 못한 악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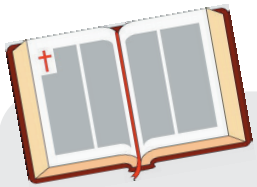
코로나는 경제와 교육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대표적인 것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의 보편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었고, 각 회사들은 그동안 인사관리 매뉴얼에는 없었던 재택근무 관리방안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또한 영화에서나 보던 화상회의를 하는 각국 수장들의 모습이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다. 일상에서도 화상회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되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개학하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각 학교들이 온라인 강의(화상 강의) 체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과 원격의료플랫폼 개발 등 IT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를 막아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LG CNS(IT 서비스 기업)는 안면인식만으로 자동결제 가능한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개발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안면인식이 가능하고, 결제과정에서 기계나 사람 간 불필요한 접촉을 없애 코로나19같은 전염병 감염 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코로나19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말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재편될 지도 모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온누리교회가 ‘온누리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간담회를 실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세상에서 제일 슬픈 광경 중 하나는 어린이 대답지 않은 어린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내면에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린이의 모습이 있는 것을 가리켜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진 이들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애어른’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이이를 ‘애어른’이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성숙한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착한아이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현상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진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척하는 것이고, 겉으로만 착한 척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고,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행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진짜 어린이의 모습은 어른이 보기에 미성숙하고 다루기 힘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나야 성인이 되었을 때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이다움과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37절).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깊은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어린이이다움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어린이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어린이이다움 속에 하늘나라와 천국의 본질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어린이 안에 예수님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풀어 쓰면 ‘나를 나타내는 자’ 혹은 ‘나와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님은 어린이이다움 속에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사람이나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33~35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열두 제자들을 보면 다들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로 취급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핵심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전혀 다른 직업에서 살던 그들의 삶의 방식과 습관이 달랐을 것입니다. 문화적, 사회적 차이는 때로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다툼으로 번집니다. 지배욕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지배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통치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대리통치 능력은 지배 욕구, 권력 욕구, 자신을 위한 탐욕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스며있고,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회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 어린이이다움,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사람이다”(마 18:4).

예수님은 ‘어린이이다움’을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의 연령은 취학 전입니다. 스스로 견고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의 특징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없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차별하려 하지 않고, 인종이든, 경제적 차이든, 외모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차이를 못 느낍니다. 권력이

## 어린이이다움

마가복음 9:33~37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로 그때를 가리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어린이이다움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형성된다면 그 모습은 어린이이다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큰 종이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소유된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큰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왕과 백성들의 특징은 어린이이다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사람이다”(눅 9:48b).

이 말씀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작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왕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졌기에 가장 작은 자와 가장 큰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린이다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35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물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첫째이신 분이데 그분 스스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까닭은 그분의 어린이이다움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내신 이도 어린이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과 헌신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지배가 아닙니다. 군림이 아닙니다. 섬김과 사랑입니다. 어린이이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것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첫째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 나라의 본질 ‘어린이이다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린이이다워질 때입니다. 어린이는 많은 소유가 없어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이를 보면서 인생을 배우고, 어린이이다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까닭은 어린이이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이다움은 지배하려는 욕구가 없는 순수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머리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이이다움이 성품과 본질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실한 어린이이다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어린이이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다는 것은 어린이이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어린이이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이다움이 영접되고, 성령 안에서 회복된다면 그 영혼 안에는 천국의 기쁨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어린이처럼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도 어린이이다움입니다. 부모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재물과 생각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 속에 거하면서 어린이이다움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첫째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고,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이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왕이 가장 큰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로 초대 받은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이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

공감소비운동 ... 298개 다락방 사연 372개 신청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85개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공감소비운동이 한창이다.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실시 중인 공감소비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면서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까지 전할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나눔 운동이다.

온누리교회가 부활주일 헌금과 4월 비전헌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각 공동체 다락방에 전달하면, 각 다락방은 교회가 준 온누리상품권에 본인의 헌금을 조금 더 보태서 5월 31일(성령강림주일)까지 소속 공동체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사회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한다 다음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야 한다.

공감소비운동 참여 열기가 아주 뜨겁다. 사회선교부에서 지난 5월 2일(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연을 접수받았는데 298개 다락방에서 사연(개별접수 포함) 372개를 신청했다. 예상보다 공감소비운동 사연 신청이 증가하자 지난 7일까지 추가로 사연을 접수받았다.

공감소비운동에 접수된 사연들도



서빙고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장신대 신학생들을 위한 선물(생필품, 비상식량 등)을 포장하고 있다.

다양하다.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은 임대료 미납 등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예봉교회를, 부천 드림플러스공동체 반석다락방은 그룹홈 청소년을, 남양주 C공동체 오남다락방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축구화를 못 사는 유소년 축구선수를 도울 예정이다. 농아인교회, 조손가정 및 취약계층, 선교사 등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교역자들도 공감소비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일(목)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카페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교역자

들이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신학생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했다. 라면, 손 세정제, 휴지, 물티슈, 초코과자, 세제 등 비상식량과 위생 용품을 포장해서 장신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 401명에게 전달했다.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신학생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의 작은 손길이 신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의: 02-3215-343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온라인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병행

순장모임 및 순예배, 개인영성관리 온라인으로

온누리교회가 당분간 예배당 주일 예배와 더불어 온라인예배와 드라이브인 예배를 병행한다.

온라인예배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CGNTV로 참여하면 된다. 토요주일예배 1~3부, 일요주일예배 1~7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가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차세대, 대학청년, 홀리스타, 외국어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스페인어예배), 사랑부(장애인예배) 주일예배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88.5MHz)에 맞춰 설교를 듣는 드라이브인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드린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바코드를 미리 발급받고,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예배 예약신청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예배당 차량 250대를 선착

순 마감한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동차 안에 머무르면서 성도들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자동차 창문을 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 진행을 위해 빠르게 출차 해야 한다. 드라이브인 예배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 또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 개인 영성관리를 위한 노력도 온라인으로 지속해야 한다. 매일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도 참여해야 한다.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이하 마리아행전 123)은 1일(하루)에 2분씩 3회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운동이다.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유튜브 채널에 매일 오전 업로드 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 정현주 기자

## NGO 더멋진세상, 푸엔테스 마을 지원

NGO 더멋진세상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이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4월 26일과 오늘(5월 10일)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 빈민가인 푸엔테스 마을 250가구 주민 1천명에게 한달치 콩, 쌀, 토마토소스, 오일, 파스타 등을 지원했다.

티후아나 지역은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공장이 가동을 멈춰 푸엔테스 마을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다.

## “선교사와 선교지를 도와주십시오!”

2000선교, 선교지 코로나19 극복 위해 총력

2000선교본부가 선교사들과 선교지 교회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온 힘을 다해 돕고 있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현재까지 37개국에 1억2천만 원 상당의 방역 및 의료용품, 식료품 등을 지원했다.

현재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581명이 선교지에 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00선교본부에서는 선교지 상황에 따라 잠시 귀국해야 하는 선교사들의 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현

재까지 선교사 49명이 입국했고, 앞으로 17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입국한 선교사들에게 편도 비행기 비용과 자가격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00선교본부는 “선교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물품과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했다. 문의: 02-3215-2028

### 재정국 선임간사 모집

온누리교회 재정국에서 선임간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은행업무와 회계 업무에 능통하거나 금융기관 혹은 기업재무관리 경력이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앙간증문 포함)를 재정국 신동은 팀장한테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9

(shine8902@onnuri.org)

## “가정이 바로 서야 예배, 교회가 바로 선다”

가정사역공동체,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

가정사역공동체가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이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가정사역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발맞춰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와 가정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

하여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을 시작했다.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은 각 가정별로 ‘진리의 도담을 나누는 부부는 만사형통’을 주제로 부부 QT나눔을 실시하고, ‘아빠가 제사장이 되어 가정예배 드리기’를 주제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큰 감동 받았습니다”

차세대 오늘(10일)까지 드라이브 스루 심방

차세대사역본부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지난 5월 2일(토)부터 ‘드라이브 스루 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차세대 교역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직까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차세대와 그 가정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차세대 가정을 방문해서 어린이주일 선물을 전달한다. 오랜만에 만난 차세대 교역자들과 차세대, 부모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각 가정과 차세대를 위해 짧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차세대 교역자들이 차세대 가정을 방문해서 어린이주일 선물을 전달했다.

최성규 전도사(서빙고 차세대 예꿈)는 “오랜만에 그리웠던 차세대들을 만날 생각에 드라이브 스루 심방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설레고 행복했다”고 고백했고, 박영우 전도사(서빙고 차세대 예꿈)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차세대 가정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세대 학부모 이지선 성도(김포공동체)는 “아이가 지난 10주 동안 온라인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매일 읊었는데 전도사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주셔서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얼른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차세대 드라이브 스루 심방은 오늘(5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차세대 드라이브 스루 심방 날짜와 시간은 캠퍼스 및 부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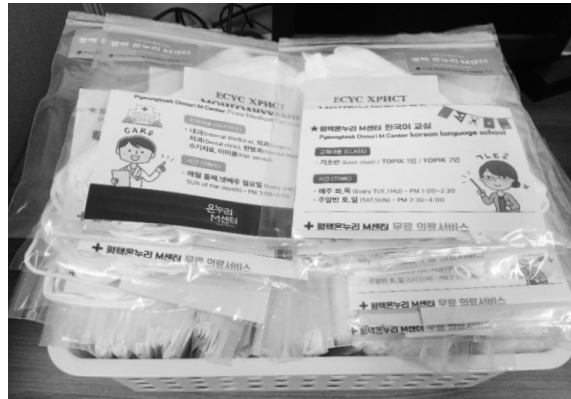
■ 코로나19, 온 누리에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 수원 온누리교회 이윤학 집사의 행복한 나눔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경험하는 위기의 경중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사회,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은 전염병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마스크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공적마스크를 약국과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공적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4월 20일 이후 한국 장기체류 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증이 있으면 공적마스크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말이다.

이주 노동자들도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주 노동자들 중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또한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일부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공적마스크를 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서류가 있



평택M센터는 이윤학 집사가 보내 온 마스크를 개별 포장해서 이주민 지체들에게 전달했다.

더라도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구하려 약국에 나갈 시간이 없다. 또한 한국말이 서툰 이주 노동자들은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확진자 동선 파악, 선별진료소 위치 안내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모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온누리M센터에서 사역하면서 이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평택M센터 이주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애정을 나눠준 이가 있다. 이윤학 집사(수원 온누리교회)다. 이윤학 집사는 이주민들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지난 달 초 평택M센터 이주민들에게 마스크 100장을 기부했다.

이윤학 집사는 지난해 평택M센터와 수원 온누리교회 동누리공동체(이하 동누리공동체)가 함께 실시한 여름수련회에서 이주민들을

처음 만났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며 깊은 관계를 쌓아갔다. 그 이후 동누리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평택M센터를 찾았다. 이주민들의 삶을 챙기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 인연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이주민공동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처음으로 열기도 했다.

이윤학 집사가 늘 이주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일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체 릴레이 기도를 하던 중 이주민공동체 지체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평택M센터 이주민 지체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두려울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기도를 마치면 그 마음을 잊을까 싶어 기도조차 잠시 멈춰두고 평택M센터 담당 이광수 선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주민 지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이윤학 집사는 이주민들의 근황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에 이주민공동체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때마침 공적마스크 제작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지인에게 귀에 거는 끈이 약간 짧은 마스크 등 시중에 팔수 없는 마스크 100장을 얻어 평택M센터에 보냈다. 이윤학 집사가 보낸 마스크를 받은 평택M센터에서는 마스크를 개별포장해서 이주민들에게 전해주었다.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던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기숙사를 직접 찾아가 마스크를 전해주고 안부를 물었다. 다른 외국인 유학생 지체들과 이주민 지체들에게도 마스크를 건넸다. 비록 어딘가 부족한 마스크였지만 그 마스크를 받은 이주민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 누구도 큰 관심을 주지 않던 이주민공동체 지체들에게 이보다 큰 선물은 없었다.

이윤학 집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이 땅에 잠시 찾아 온 나그네인 이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 본향에 가기 위해 잠시 이 땅에 머무를 뿐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 땅에 나그네로 온 이주민들을 돌보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들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국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주민 지체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지요.”

###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

## 착한 소비와 나눔, 그 이름 ‘공감소비운동’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취약계층이다.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85개 교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85개 교회들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지역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외된 취약계층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공감소비운동’ 캠페인이다.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를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교회의 사회적 나눔이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은 교회가 부활절헌금과 4월 비전헌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각 공동체 다락방에 전달하면,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준 온누리상품권과 개인의 비용을 조금 더 보태서 지역사회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물품을 성령강림주일인 5월 31일까지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을 접수했다. 총 298개 다



교회에서 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사회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취약계층에 전달해야 한다.

락방에서 372개 사연(개별접수포함)을 신청(5월 2일 기준)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대상과 사연이 다양하다. 서빙고 한강공동체 소망다락방(이하 소망다락방)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사연을 신청했다. 예봉교회는 최근 임대료 납부와 차세대양육, 취약계층 성도 지원, 전도물품 구입 등 교회운영과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망다락방은 예봉교회를 공감소비운동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통시장에서 필요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나선 다락방도 있다. 수원 남누리공동체 2다락방(이하 2다락방)은 한 아파트 상가에서 떡볶이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강희망(가명)씨를 돕기로 했다. 강희망 씨는 남편의 소천 이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어깨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게 됐다. 앞친 데 뒤편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

서 자녀들의 개학이 미뤄져 가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다락방은 강희망 씨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서 생필품과 식료품, 의류품 등을 구입해서 전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돕고 싶다는 사연을 신청한 다락방들도 있다. 남양주 C공동체 오남다락방(이하 오남다락방)은 유소년 축구선수임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축구화 등 필요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돕기로 했다. 오남다락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서 관련 용품을 구입해서 전달하기로 했다.

부천 대학청년부 드림플러스공동체 반석다락방은 개학이 미뤄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룹홈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서 식재료들을 구입해서 전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청각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농아인교회,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이웃, 조손가정과 취약계층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등을 돕기 위한 사연들도 있다.

■ 코로나19, 온 누리에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 전국 누비며 작지만 큰 도움 주고 있다!

## CGNTV 작은 교회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

CGNTV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CGNTV가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지역사회 교회를 지원하는 ‘작은 교회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이하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가 목회자들과 성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CGNTV는 온라인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거나 기술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원활한 온라인예배 운영이 어려운 250개 작은 교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200개 교회에 스마트폰 패키지를 전달하고, 50개 교회에 웹캠(노트북), 캠코더(데스크탑)를 이용한 온라인예배 설비를 구축해주는 등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 전담팀이 전국을 누비면서 작지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모처럼 웃을 일이 생겼다. CGNTV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 덕분이다. 고용진 목사(삼척소명교회), 송만섭 목사(어린이나라교회), 박상은 목사(군북한사랑교회)도 CGNTV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원활하게 온라인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목양과 관련한 새로운 꿈도 꾸게 되었다.

### 삼척소명교회 예배, 이제는 유튜브 실시간 송출

지난달 27일 CGNTV 온라인예배지원 프로젝트 전담팀이 강원도 삼척시 삼척소명교회를 찾았다. 온라인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고민 중이던 고용진 목사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2주면 끝나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한 달이 넘어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고용진 목사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삼각대를 주문하고 삼척소명교회 온라인예배를 준비했다. 온라인예배 영상이나 음향 퀄리티를 높이고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구형 스마트폰 한 대로 온라인예배를 진행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방법도 어렵고요.”

고용진 목사는 CGNTV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예배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목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온라인예배는 대형교회에서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 교회에서도 온라인예배와 목양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진 목사는 CGNTV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콘텐츠와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이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사역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년 전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섬기겠다는 사명으로 삼척소명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생들과 교제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CGNTV 지원으로 제작한 온라인예배와 목양, 온라인 프로그램을 잘 활



CGNTV 온라인 예배지원 전담팀에게 영상장비와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 목회자와 성도들(좌측부터 삼척소명교회, 어린이나라교회, 군북한사랑교회).

용하면 대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이나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9일 수요일예배부터는 삼척소명교회 예배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 CGNTV가 지원해준 장비를 테스트한 고용진 목사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예배, 목양, 양육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 어린이나라교회, 온라인과 예배당예배를 동시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어린이나라교회 송만섭 목사도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목사로서 부끄러웠어요.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어린이나라교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예배당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예배와 영상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거의 없었다.

“어린이나라교회 성도님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인데 초신자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나보더라고요. 이제 막 믿음이 자라는 시기인데 오랜 기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큰일이다 싶어서 휴대폰을 활용해서 페이스북으로 온라인예배를 드렸어요.”

페이스북으로 드린 온라인예배는 기대와 달리 부족함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CGNTV가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신청했다. 어린이나라교회는 CGNTV로부터 캠코더 장비를 지원받아 5월 3일부터 예배당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어린이나라교회 첫 번째 온라인예배를 드렸어요. 주말에도 일터에 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온라인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예배와 예배당예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합니다. 설교를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송만섭 목사와 어린이나라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위로였다고 고백했다.

“지역사회 작은 교회들은 알게 모르게 대형교회에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형 교회들이 나서서 지역사회 작은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인줄 알았는데 함께 기도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 군북한사랑교회, 주일예배 실시간 온라인 송출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한사랑교회 박상은 목사와 성도들도 CGNTV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자체 지침에 따라서 2미터씩 떨어져 앉았더니 본당 좌석이 부족해서 식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식당까지 실시간으로 영상



을 송출할 마땅한 설비가 없어서 온라인예배를 틀어놔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본당에서는 휴대폰으로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고, 식당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틀어놔는데 시간차가 발생하면서 본당에서는 찬양이나 기도가 끝났는데 식당에서는 한창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됐다. 교회가 작은 탓에 소리가 돌림노래처럼 울려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예배의 귀중함을 경험하면서도 예배당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군북한사랑교회를 방문한 CGNTV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 전담팀이 박상은 목사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줬다. 온라인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비는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원활한 영상 송출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해줬다. 군북한사랑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다. 주중예배뿐만 아니라 박상은 목사가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군북중학교, 군북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야외 버스킹, 다양한 교회음악 반주 콘텐츠 등도 온라인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CGNTV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 전담팀은 “이번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에서 지원한 장비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 심방, 성경공부 등에도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면서 “CGNTV는 앞으로도 온라인예배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된 교회들이 원활하게 온라인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 여성사역 '마리아행전 123' 기도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나라를 위한 마리아들의 기도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수년이 되어간다. 내 가족과 가까운 지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전부였던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을 통해 당신을 알게 하였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하셨다.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에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을 즈음, 뜻하지 않은 남편의 사업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 교회사역이 내 삶의 전부였던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직장생활은 여러 가지 힘겨움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마리아행전 기도모임에서 중보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코로나19'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삶이 모두 제한되고, 사회적 동물이라 일컫는 인간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마리아행전 123'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김유하 집사와 가족들.

라는 낯선 이론과 운동이 시작됐다. 직장가게인의 삶 뿐만 아니라 종교집회와 예배를 규제받는 당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는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리석게도 모든 생활이 정지되고, 규제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전진과 열성

을 멈추고 회개하게 됐으니 말이다.

요즘은 매일 이른 아침에 울리는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자'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러 캠퍼스 목사님들의 간절한 회개와 고백으로 올려진 기도문을 보면서 나도 동일하게 회개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그

리스도인인 우리 각자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 같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기도문자 등 한없이 낯설고 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음을 믿는다. 쉽지 않고 힘겹지만 이러한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회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정결하게 준비되었을 때 독대로 드려지는 이러한 영상예배의 훈련을 통과하여 다시금 지체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완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한다. / 김유하 집사(일산공동체)

선교지에서도  
코로나19 극복하고 있습니다

## “주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를 나누며...”

‘선교 인도’ 비전으로 4월 한 달 동안 복인도에서 15명의 선교사 지망생을 발굴하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합숙훈련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갑자기 24시간 국가봉쇄령을 내리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21일 동안 국가봉쇄를 시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면 경찰들이 사정없이 몽둥이로 때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수도에서 일자리를 잃고 렌트비를 내지 못한 채 생계가 어려워진 수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시외버스터미널에 모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이 없는 이 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희를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두려움과 묶임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인터넷으로 드린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풍랑을 거슬러 가려고 애쓰지 말고 풍랑에 몸을 맡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힘



John, Joyce 선교사는 대량실직과 국가봉쇄령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들을 돕고있다.

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TIM 본부와 이 나라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몸을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하나?’, ‘굶주린 사람들의 제일 첫 타깃이 우리 같은 외국인이라는데 어찌지’, ‘국내선, 국제선 모두 운항이 금지되었는데 어떻게

나가야 하지?’ 등의 두려움과 묶임이 떠나고 나니까 다시 이 나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잃고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할 무렵, 때마침 OCC공동체에 서 구제현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현금으로 쌀과 식료품을 사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

음에는 국가봉쇄가 끝나면 나누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전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현지 목사님들과 연락해서 직업을 잃고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조사해서 하루에 10명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주지 못하고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먹이기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식료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98가정에 주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21일 동안 국가봉쇄를 풀지 않고 다시 19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어렵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맑아진 공기를 마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본부의 의견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도로와 하늘길이 모두 닫혀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 언제 나갈지, 또 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 뉴스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잃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도 넉넉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John, Joyce 선교사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 광 온누리교회

늘 그리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교역자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광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형철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때 광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은 우리나라 거제도 크기의 작은 섬입니다. 다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주거양식, 위생 관념이 부족한 원주민들의 생활양식, 잦은 파티와 경조사, 열악한 의료시설 등 코로나 감염 속도를 부추길 우려가 다분한 곳입니다. 광 자치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3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기간을 거듭 조정하다가 5월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규제가 미국 본토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입니다. 모임금지 항목에 교회를 지정하고 숫자에 상관없이 일체 모임을 금지하도록 법적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 온누리교회는 3월 15일 이후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과 광을 오가는 대다수 항공편이 취소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었고, 수많은 관광객들로 활기찼던 공항과 호텔가는 어둡고 스산한 모습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 지역 교회들도 자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 온누리



광 온누리교회 성도가 서울 온누리교회 예배실황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다.

교회는 영상예배를 드릴만한 인적, 기술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교회의 네트워크 덕분에 어느 때보다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 예배사역자님들의 헌신에 힘입어 예배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전 교인이 주일 아침 유튜브 예배실황에 참여한 다음 인증샷과 함께 말씀의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갑니다. 비록 아무도 올 수 없지만 새벽예배를 동일하게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매주 주일 저희 가족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가득한 예배의 향기를 기억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시로 교회의 구석구석을 끌고 다닙니다. 당장이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성도님들이 깨끗한 공간을 누리는 상상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빈 예배당에서 혼자 큰소리로 찬양하다가 가시고, 어떤 성도님은 구슬땀 흘리며 교회 뒤뜰에 자란 잡풀을 꺾고 조용히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그냥 둘러보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제게 주시려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놓고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엡 2:19-22)입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기도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를. 둘째,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셋째, 경제적 위기를 맞은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풍성한 예배를 경험하기를. 다섯째, 찬양사역과 차세대 양육을 위해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여섯째, 광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늘 잊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외롭고 답답한 현실의 벽에 갇혀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습니다. 고난과 위기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속히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김형철 목사(광 온누리교회)

## 뉴욕IN2 온누리교회

안녕하세요. 뉴욕IN2 온누리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이곳의 소식을 전합니다.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피해가 심한 지역이자 미국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4월말 기준으로 미국의 확진자가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뉴욕이 약 30만 명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5만5천 명인데 뉴욕에서만 2만2천 명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매일 3천명 이상의 확진자들과 200명 이상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뉴욕IN2 온누리교회는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해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맨해튼에 거주하고 있기에 코로나 피해가 큼니다. 35명의 성도가 감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이 완치되었지만 아직도 15명이 투병 중입니다. 실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기에 뉴욕IN2 온누리교회는 미국의 코로나 대란 초기부터 단계별 대응을 통해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과 이웃사랑을 지속해왔습니다.

우선 성인과 차세대 주일예배 및 새벽기도, 순모임, OBC, 주중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감염자들과 실직자들이 나오기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도시락'.

하면서 'IN2 코로나 지원팀'을 꾸리고 코로나 긴급 구제현금을 모금해서 청년실직자들에게 구제현금을, 후원이 중단된 뉴욕 장애인 선교단체 및 한인노숙인센터에는 후원을, 감염자 및 실직한 성도, 맨해튼 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일주일 치 반찬을 보내는 '사랑의 도시락'을 진행했습니다. 6주차까지 총 400개

를 보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모아 취약계층 종사자들과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동시에 뉴욕IN2 온누리교회 의료인 성도님들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성도와 비교인들을 위한 의료상담 및 비디오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성도 3명은 자원

해서 실직급여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역사처럼, 뉴욕IN2 온누리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며 자기 소유를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부활주일 아침 영상메시지를 보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장로님들께서 마스크 후원과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뉴욕IN2 온누리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투병 중인 성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뉴욕IN2 온누리교회 70여명의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 계획이 드러나 미국 교회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화해하고 정결케 되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롭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쪼록 기억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심상현 목사(뉴욕IN2 온누리교회)

##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며”

조선 교회(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 조선 교회의 ‘실력양성운동’

## 기독교 정신의 함양과 실력양성이 바로 독립

조선 교회(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했거나 아주 많이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한국 근대화의 씨앗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여성운동과 계몽운동, 물산장려운동과 독립운동 등을 이끌면서 우리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아름답고 빛나는 조선의 선교 역사를 분명히 직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번 순서에서는 조선 교회가 민족의 기업과 산업의 발달을 위하여 힘썼던 ‘실력양성운동’을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경성방직의 물산장려운동 포스터(좌),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지도자 고당 조만식(우).



물산장려운동의 세 가지 기본 정신이 있었다. 첫째, 의복은 남자는 무명베 두루마기를, 여자는 검정물감을 들인 무명치마를 입는다. 둘째, 설탕, 소금, 과일, 음료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우리 것을 사 쓴다. 셋째, 일상 용품은 우리 토산품을 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산품을 사용하더라도 경제적 실용품을 써서 가급적 절약한다.

1922년부터 1937년까지 이어진 물산장려운동에는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는데 당시 사회주의측에서는 ‘부르주아계급의 배를 불린 운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갑작스런 국산품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증가가 이어지지 않아 국산품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취에 시달리던 시민들을 일깨우고 다양한 상공인 기업가의 참여를 이끌어 내 각종 조합과 기업을 일으키는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 교회의 실력양성운동은 농촌에서도 이어졌는데 이른바 ‘농촌경제살리기운동’이다. 1920년대 이후 조선의 농촌도 황폐화되어갔다. 토지조사사업 이후 중소지주와 자작농민들이 크게 줄어 농촌의 중간계층이 몰락했다.

기독교청년연합회(YMCA)에서 1923년 농촌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1925년과 1926년에는 미국의 농업 전문가 브룬너가 함께 농촌을 돌며 강연과 농사법 등을 전수했다. 농촌의 실태를 담은 브룬너의 보고서는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에서 보고되었고, 국내외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장로교회의 ‘농촌부’, 국내외 기독교 단체가 연합한 ‘농촌사업협동위원회’가 조직돼 농촌지도자 강습회와 농촌강습회를 개최했다. 농민계몽, 농사계량, 농촌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이한 점은 실제 예배당에서 축산, 양계, 원예 등 실제 농사법을 가르쳤다. 지역 교회에서도 종자, 비료, 농기구를 공동으로 구입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농사법 전수와 더불어 농촌에 남아있는 구습을 타파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정신의 함양과 실력양성이 바로 독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의식성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산업의 성장이다. 산업의 성장 없이는 근대화를 이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는 한국의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가 조선의 산업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랬다. 그것이 곧 나라의 독립운동과도 연관이 있었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조선의 복음화’였다. 의료, 교육, 여성인권의 성장과 발달 등이 꼭 필요한 계몽운동이긴 했어도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의 주된 목표가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조선의 복음화보다 우선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당시 서양 선교사들도 의료와 교육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1904년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문명은 기독교가 아니다. 서구의 사상, 관습, 발명품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적 기독교의 소개이지 서구 문명의 소개가 아니다.”

그 때문인지 조선의 산업발달에 직접적으로 나선 선교사가 드물었다. 조선의 산업발달에 기여한 실력양성운동은 서양 선교사들이 양육한 조선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옳다. 그들이 조선의 산업발달을 장려하는데 더욱 힘썼기 때문이다.

### 조선의 상공업, 시대적 걸림돌을 만나다

조선은 사람을 ‘사(학자), 농(농부), 공(장인), 상(상인)’으로 나누는 농업중심 국가였다. 토지의 생산량이 좋아서 농사만 지어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었고, 물건을 사고팔아서 돈을 버는 상인들을 천시했다. 16세기 이양법이 보급되고 잉여생산물이 많아지면서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이 이어졌지만 미약한 수준이었다.

18세기 박제가와 박지원이 남긴 기록에서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농부들은 1년에 무명옷 한 벌도 제대로 입지 못한다. 남자나 여자나 태어나서 침구가 무엇인지 구경조차 못하고 이불 대신 명석을 깔고 살아간다”는 기록을 남겼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 “경상도 사람들은 새우를 모르고 평안도 사람들은 감과 감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한다. 바닷가 사람들은 새우, 정어리를 거름으로 줄 정도로 흔하지만 한양 사람들은 구경도 할 수 없다. 이 모든 이유가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는 기록을 남겼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조선에서도 상공업의 발달이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부업 위주였던 민간수공업이 전업화 양상을 띄었고, 각종 시장이 들어섰으며, 개성, 의주, 동래에서 중국, 일본 등과 무역을 하는 거상들이 생겨났다. 개항과 더불어 조선의 상공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일본과의 강제합병이라는 시대적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 일제의 수탈과 기독교의 실력양성운동 ‘물산장려운동’과 ‘농촌경제살리기’

일제는 1910년 강제합병 이후 회사의 설립과 운영, 해산 등 모든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령을 반포하면서 조선인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제한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한국인 회사는 27개에서 63개로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일본인의 회사는 109개에서 280개로 증가했다.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은 급속히 확산돼 1920년에는 414개까지 늘었다. 조선의 산업이 일본의 자본에 잠식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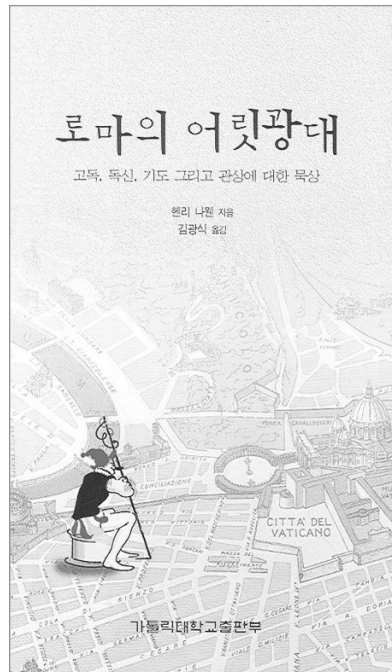
1920년부터 조선의 실력을 키우자는 ‘실력양성운동’이 일어났다. 평양의 고당 조만식과 평양 기독교인들이 ‘물산장려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당 조만식은 15살 때부터 포목과 지물업으로 큰돈을 벌만큼 경제에 빠삭한 기독교 독립운동가다. 민족자본을 통해 일본의 경제적 수탈에서 벗어나는데 힘쓴 인물이다.

물산장려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22년 10월경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철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이 소식을 들은 기독교 학생들이 먼저 일어섰는데 1922년 12월 연희전문학교 엄태진과 5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자작회’가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했다. 평양과 서울에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은 각 사회단체와 언론기관의 지지와 호응을 받아 확산되었다. 조선 기독교 청년회에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을 표어로 내걸고 물산장려운동을 장려하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책 읽어주는 목사

## 관상기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도



로마의 어릿광대  
헨리 나우웬 저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8,000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외로움과 예배의 공백으로 인한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웬(1932~1996)의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책이다. 저자가 5개월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신학생과 수도자, 사제를 대상으로 강의한 것을 바탕으로 고독과 공동체, 독신과 거룩함, 기도와 생각, 관상과 직무라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엮은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공동체에서의 친밀감의 원천으로 ‘고독’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만, 때로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더 많은 집착과 피로를 느낄 때가 있다. 오히려 우리는 고독 안에서 자신의 강박관념, 멈출 수 없는 성취욕, 두려움과 분노로 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고독 안에서 가면을 벗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참된 자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저자는 “고독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친밀감

으로 인도해주며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관상기도’를 제안하고 있다. 관상기도란 주의 깊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말한다. 저자는 관상기도를 어느 조각가와 소년의 대화로 설명하고 있다.

조각가의 작업을 보고 있던 소년은 어느새 거대하고 힘이 넘치는 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묻는다.

“아저씨,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대리석으로 사자를 만든 조각가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대리석 안에 있는 사자를 보기 전에 내 마음 안에서 먼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대리석 안에 사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비밀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자가 대리석 안에 있는 사자를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대화처럼 “우리가 세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 안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인식하는 것이 관상생활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버지의 현존 안에 살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이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처럼 홀로 지내야 하는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기도 훈련과 고독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 더욱 깊은 친밀감을 가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릿광대처럼 고독 속에서 눈물과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삶과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이 주는 통찰이 아주 깊고 좋다고 생각한다.



김현식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 “하나님은 한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답: “저 역시 이 질문을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서 궁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익숙한 ‘삼위일체(Trinity)’라는 용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의 참 의미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초대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에 적힌 지상명령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신 6:4)와 같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는 구약성경의 관점과 차이가 있었다. 신약의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다”라는 말씀과 구약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믿음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묶을 것인지가 초대 기독교인들의 과제였다.

따라서 초대 교부들은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 구약에 나오는 한 분의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세 분의 하나님을 설명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기에 이해를 돕고자 신학자들이 헬라어인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라는 표현을 가져왔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나뉘 속에서 연합’해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셋’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에서는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로, 학교에서는 교사로 역할만을 바꾸어 활동한다는 ‘양태론’과 하나님의 본질이 다른 세 분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활동한다는 ‘삼신론’이 그것이다. 이는 좀 더 쉽게 이해하려다가 생기게 되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이다. 이처럼 여러 주장을 통한 논쟁의 역사 가운데 알렉산드리아회의(A.D 318년), 니케아회의(A.D 325년), 콘스탄티노플회의(A.D 381년/ 니케

아-콘스탄티노플 신경)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 분이지만 동시에 세 위격(位格, persons)이 동일한 한 본질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A.D 381년 최종 확정되었다. 그 교리를 오늘날 우리들은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고 있다.

성경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실 때 ‘이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라고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단수이자 복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격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즉, 삼위(三位, three persons)가 한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6~17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 곁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동시한 한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

님이시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사람의 언어와 논리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증언이자 믿음의 고백이며 삶 속의 체험이다.

다시 한번 깨닫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사색의 도구로 삼기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됨을 이루셔서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 성경말씀을 주어로 묵상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 됨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인도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 깊이 고백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 누리기를 축복한다.



정현석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시리즈

# 코로나19 이후 새로워진 교회를 소망하며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전에 없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가 이미 처해 있던 위기의 몇몇 측면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이 문제들을 없던 일처럼 덮고 가지 말고 직시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 세상과 함께 하는 공동체

감염병이 확산하는 국면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사안은 예배당예배 중단 여부 및 대체방안이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지켜온 주일성수의 고유한 전통을 생각할 때 이 시점에 예배의 형식 및 주일성수의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다분히 교회 내적인 사안이다. 한국 사회 전체가 유례없는 재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회 내적인 문제가 한국 교회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외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거기에 몇몇 교회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예배를 강행하다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날로 악화되었다. 물론 다수의 교회는 다중밀집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당예배를 대체했었고,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재난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관심과 실천에 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 자체의 유지나 성장에 있지 않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 세상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 세상 속에 존재한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운명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의 운명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한국 사회와 지구촌 전체가 전례 없는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이때 성도들이 교회 내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공감 능력 상실을 보여 준다. 온 세상을 덮친 재난 앞에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심지어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까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 치하에서 온 백성이 울부짖던 시절 3.1독립운동에 앞장서고, 한국전쟁으로 한반도 온 땅이 황폐했을 때 곤경에 처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에 여념 없었던 과거 한국 교회의 모습과 사뭇 대조를 이룬다. 이 와중에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 재난 상황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그나마 큰 위안이 된다. 특별히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예배당을 수제 마스크 공장으로 만들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공장 노동자로 변신한 한 교회의 이야기는 큰 감동과 시사점을 안겨 준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모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한다. 이 교회의 창의적인 발상과 실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세상 속 교회의 바람직한 자리매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실제적인

회 생태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의 보편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폭로한다. 예배당예배 중단 결정은 개교회주의의 이 같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밀집모임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많은 한국 교회가 예배당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대체하거나 가정예배를 권장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형식의 전환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개별 교회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기후위기 등 오늘날 많은 재난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과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재난의 위협 앞에서 인류 사회는 국가와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전문 영역의 차이를 초월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 받은 교회들이 오히려 개교회주의의 틀에 갇혀 재난 시대의 요청에

그것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특히 목사들) 가운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과학적, 의학적 이해 없이 바이러스 발생의 원인을 마귀의 술수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린다거나 신앙의 열정이나 기도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발생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지만 이 신앙고백이 우리 시대 재난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강구를 위한 과학적, 의학적, 도덕적, 정치적 노력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편견으로 왜곡하는 불경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 교회는 목사나 신학자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교회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과 같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 내 만연한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들은 이번 사태로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신전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계 안에 득세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사이비 이단집단과 얼마나 큰 차별성을 보여 줄 수 있는냐 하는 데 있다. 많은 대학생 청년이 신천지로 옮겨간 이유에 관해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식과 이성을 신앙과 대립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반지성주의적 편견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가 마비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교회는 재난 상황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미신적인 설명뿐 아니라 몰상식적인 사이비 이단들이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기존의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문하는 믿음을 격려하고, 성경에 대한 성실한 학자들의 연구를 존중하고, 신앙과 교회의 영역 밖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부름 받은 거룩한 공동체다. 교회는 구원과 치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다.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당면한 재난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과 재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본적인 자기 개혁과 갱신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명예를 다시 찾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김정형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 교회가 근본적인 자기 개혁과 갱신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명예를 다시 찾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방법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준다. 이 교회가 본을 보여 준 것처럼 한국 교회가 교회를 위한 모임의 형식과 방법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모임으로의 창의적인 자기 변신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일반 사람들이 교회 모임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 무너진 교회 생태계의 복원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교회의 자기 정체성 및 사명 이해의 문제점뿐 아니라 개교회주의의 확산으로 한국 교회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법도 한데 같은 교단, 같은 노회,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대처 방법도 다르다. 이 점에서 개신교의 대처 방식은 천주교와 불교의 대처 방식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한국 개신교를 특징짓고 있는 개교회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공동의 위기 앞에서 한국 교회가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개별 교회 위기 극복의 과제를 전적으로 떠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 한국 교

회 생태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의 보편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폭로한다. 예배당예배 중단 결정은 개교회주의의 이 같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밀집모임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많은 한국 교회가 예배당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대체하거나 가정예배를 권장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형식의 전환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개별 교회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기후위기 등 오늘날 많은 재난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과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재난의 위협 앞에서 인류 사회는 국가와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전문 영역의 차이를 초월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 받은 교회들이 오히려 개교회주의의 틀에 갇혀 재난 시대의 요청에

## 반지성주의의 극복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현대 과학의 합리적 사고를 배척하는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언급하고 싶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유익한 설명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 특히 의학 분야 전문가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은 자연 생태계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의 확산 역시 자연적 인과관계로 충분히 설명된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모든 노력은 이와 같은 의학적, 과학적 지식을 전제하고



TGC KOREA '코로나19'에 관한 아티클

KOREA 복음연합

#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지혜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다.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사실을 잊곤 한다.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종종 당황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여러 나라가 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여념이 없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다.

우리는 갑자기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세상을 살게 되었고, 일상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못쓰게 되어버린 옛 습관과 일상 대신 새로운 일상의 습관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시간도 예상치 못하게 왜곡되는 듯하다.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는 옛 습관이나 행동, 또는 우리가 '정상'이라 부르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정을 질서 있게 통제하고, 시간을 잘 관리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이 지장을 받는 일은 전례 없는 것이다. 이 사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 디지털 미디어와 우리의 관계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좋은 기회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삶에서 디지털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다. 모바일 기기와 없는 곳이 없는 무선 네트워크로 인해 과거에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켜서 가끔 사용하던 인터넷이 이제는 우리 삶 전체 영역으로 확대되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삶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개인 정보의 특성, 시민사회의 건강성, 노동의 가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상황, 인류 번영의 조건 등에 관한 윤리적, 법적, 철학적, 심지어 신학적인 질문까지 하고 있다.

서로 물리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합당하고도 거센 사회적 압력 때문에 이제 우리 대부분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매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에 의존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도구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불확실성과 염려의 시대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위기의 시기에도 우리가 평소 시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은 이제 정보를 취득하고,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이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문제에 직결된 위기의 때에는 자기 자신,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얻게 해 준다. 적은 노



력으로도 우리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전염병 학자들, 바이러스 전문가들, 전문의료 인력들의 견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여러 나라의 상황이나 국제보건기구들, 각 지역 의료 및 응급시설과 관련된 상황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독이 되는 가짜 정보 역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공포감에 사로잡힌 일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거나 확인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 보건관계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논하거나 이 바이러스의 치명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지형도를 탐색할 때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자들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위험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로 둘러싸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위험은 우리가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디지털 미디어와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최신 정보를 찾아 미친 듯이 뉴스 피드(news feed)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불안 집 구경을 멈추기 힘든 것처럼, 뉴스 확인을 멈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SNS는 강박적으로 뭔가에 참견하는 것을 조장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의지할만한 지도도 없이 모두가 출구를 찾으려 애쓰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크면 그것이 우리를 마비시키거나 감정적으로 압도해버릴 수도 있다.

## 정보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

정보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당연히 좋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나 더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염려가 해소되거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끔찍하리만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요량으로 정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디지털 기기들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기도도 두려움과 염려를 다루도록 해보라.

매일 특정 시간에만 최신 뉴스를 확인한다거나 필요한 경우 뉴스 피드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아침에 믿을만한 몇몇 뉴스를 신속히 훑어본 후 곧바로 일과를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내가 전문 의료인이나 응급대책반이 아니라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 수를 세세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다. 내가 입법이나 정책전문가가 아니라면 바이러스 해법에 대해 논쟁하고 싸우는 정치인들에 대한 뉴스를 계속 읽을 필요는 없다. 정보 과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만큼의 정보만 취득하는 지혜이다. 상식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정보를 너무 많이 취득하는 것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영상에 의지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 도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교제하는 공동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사실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지적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일정 기간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디지털 방식으로 서로 연결하는 일에 아주 익숙하다. 문자, SNS, 또는 페이스타임(FaceTime) 같은 앱은 우리 삶에서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사용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호격리의 시기인 지금 화상회의(videoconferencing)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비록 불완전하기는 해도 다른 이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미소와 목소리를 통해 위안을 느낀다. 그러한 위로를 잘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교제를 위해 오랜 시간 디지털 수단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교제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된다. 사람은 영과 육의 전인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닌 피조물이다. 다른 피조물들처럼 우리에게도 육체가 주어졌다. 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가 육신의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육신은 인성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영상으로 듣는 설교를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제자매들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예배드릴 그날, 서로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할 그날, 다시 한번 성찬의 떡과 잔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맛볼 그날을 고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재발견하게 된다. 외로움이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고독은 우리의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서로 피상적으로 연결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진정한 고독을 추구하지 못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가 디지털 소통 기술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 Michael Sacasas(《The Convivial Society》저자)

## 영화와 함께 읽는 성경

# “네 이름이 무엇이냐?”

## 폴 고갱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융합  
심리학회소장)

심리학자 루이스 코즐리노에 의하면 리더십 유형에 따라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타고난 알파(Alphas)형’

이다. 이들은 집단 안에서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낸다. 필요할 때는 다른 멤버를 이끌 수 있는 타고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성경 인물 중에는 요셉이나 다윗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둘째, ‘타고난 베타(Betas)형’이다. 이들은 타고난 추종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부여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격려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출 4:13)하며 버티던 초기의 모세가 이런 유형이다.

셋째, ‘가짜 알파(Pseudo Alphas)형’이다. 이들은 겉보기에 알파형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내면의 베타 때문에 갈등하며, 스스로를 알파라 착각한다. 자신의 본모습을 부정하고 타인을 공격하며 허세를 부리면서 불안감을 억누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후의 사울이 이런 유형이다.

넷째, ‘알파추구형(Aspiring Alphas)형’이다. 이들은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베타형이지만 알파가 되고 싶어 한다. 실제로 그럴 능력 있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제발 저 좀 알아주세요!” 유형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남의 이목을 끌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안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인식과 달리 천성은 추종자형이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유형도 ‘알파추구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심리치료를 진로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대표적이다.

### 전형적인 ‘알파추구형’ 야곱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묵상할 그림은 폴 고갱(1848~1903년)이 19세기 후반인 1888년에 그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다. 정식 이름은 이보다 길다. ‘설교 후의 환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야곱이 그의 아내와 아들 등 일행 모두를 압박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



폴 고갱이 1888년에 그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소장).

“인정받고 싶은 요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던 야곱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런데 어딘가에서 낯선 사람 즉, 천사가 나타나고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한다. 천사는 야곱이 완강하게 버티자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든다. 그리고 말한다.

“동이 텃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그러나 야곱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이에 천사가 말했다.

“이제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은 전형적인 알파추구형이다. 사실 성경 인물 중에 야곱만큼 집요한 승부사적 기질을 가진 캐릭터도 드물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고야 만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엄마와 결탁하여 아버지와 형을 비열하게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은 적도 있다. 희대의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싸우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천사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죽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틴다. 이를 가상하게 여긴 천사가 오죽하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을까.

고갱의 이 그림은 바로 그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고갱은 성경 본문에다가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서 씨름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고대 중근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19세기 자신이 살던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축제의 한 장면처럼 그려냈다.

고갱은 이번에도 자신만의 개성 있는 강렬한 원색을 동원한다. 일부러 원근법도 왜곡하면서 평면적인 색면 처리를 하는 것도 평소 그의 특징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림은 여느 작가가 그린 경건한 이미지의 종교적 주제의 성화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 풀밭은 푸른 초원이나 모래밭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붉은 색이다. 그리고 그 풀밭을 나무가 대각선으로 반을 나누고 있다. 왼쪽에 브르타뉴 지방 특유의 하얀색 보닛을 쓴 여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모습이 없었다면 이 그림은 정말 씨름하는 장면과 이를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을 묘사한 민속화처럼 보였을 것이다.

###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다

압박강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낯선 남자는 천사이다. 천사는 신성한 신비를 상징한다. 성경에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이 낯선 남자를 표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을 암시한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은 고난과 재생을 상징한다. 천사와 만난 후에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게 된다. 이것은 야곱의 ‘고난’을 상징한다. 하지만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다. 야곱은 온전히 새롭게 거듭난다. 일종의 ‘재생’이자 ‘부활’의 통과의례를 치른 것이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과거 도망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짐수를 부리던 야곱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마와 작당하여 형 에서를 속이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 아내와 재물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이 넘게 절치부심하던 야곱.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던 야곱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자면, 고갱은 이 그림을 자신이 살면서 그림의 배경으로 삼은 브르타뉴 지방의 한 마을 성당에 걸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성당의 주임신부가 미술에 대한 조예가 없는데다가 민속화 같은 속세적 분위기를 강렬하게 풍기는 고갱의 그림을 구입하는 걸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결국 이 그림은 지금 에든버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몇 년 전 고갱이 1892년에 그린 ‘언제 결혼하니’라는 그림이 경매장에서 3,200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그림도 최소한 몇 십억을 넘어 몇 백억을 호가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림의 가격까지 매길 능력은 없지만 추정컨대 말이다.

뭐든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고갱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성당 주임신부 때문에 그 성당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굴러온 복덩이를 걷어차 버린 격이다. 아마 지금도 이 성당이 남아있다면, 성당 사람들은 100여 년 전의 주임신부의 결정을 땅을 치며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표인봉, 윤유선의

## 하늘빛향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40분

## 스승의 날 특집

<무한도전> 조정코치로 출연한  
김지호 코치가 제자들과 함께 꾸는 꿈



독수리 기독교학교 교사 김지호 코치

5월 10일 오후 5시 40분

## 부부의 날 특집

'아지동 테마파크'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룬 부부의 도전



컴프로 대표 유신희, 차수현 부부

5월 17일 오후 5시 40분

가정을 세우는 CGNTV 콘텐츠는 CGNTV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